

조선을 보는 또 하나의窓



이 속 인

조선. 유학의. 성. 담론



어머니, 비네 뜻 기억,
 가절니 마지 못하랴디
 맘의 선후섬으 막한다.
 맘고심써 힘호려라
 부모섬기느 도리라
 기르시니 부모섬사면이 불족
 좇차나며 남보의 차힌 적을크
 충근가절니 마지 못하랴디
 근아비, 맘의 선후섬으 막한다.
 맘고심써 힘호려라
 부모섬기느 도리라
 기르시니 부모섬사면이 불족
 좇차나며 남보의 차힌 적을
 남보의 차힌

정절의역사

정절을 지킨 아내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정절을 해친' 아내에 대해 분노하고 응징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정절은 곧 국법이였다. 정절에 내포된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와 그 숨겨진 비밀을 밝힘으로써



● 정절의 정치 : 15세기 김씨 부인의 자손들

● 소문의 정치 : 16세기 함안 이씨의 규방



- 1415년, 영돈녕부사 李枝와 趙禾의 미망인 김씨가 결혼
- 사헌부에서 李枝를 탄핵
- “아내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서로 혼인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태종)



- 이지 1349~1427 : 이성계의 사촌. 원종공신. 좌의정 및 영의정 지냄.
- 김씨 1359~1432 ? : 金湊의 딸. 김주는 조선건국의 주체 신도시 한양의 성곽축조 권위자. 정2품 문하시랑찬성사.
- 趙禾 : 영의정 지냄. 개국공신 趙浚의 조카.

- 1427년(세종 9) 79세 이지, 향림사에서 의문사.
- 공신의 딸이고 공신의 아내이지만 失行한 여자에게는 작위를 줄 수 없다. (조선경국전)
- 김씨 세 아들 趙深, 趙明初, 趙復初 및 손자들의 고난

- 1427년, 세종 조복초를 불러 “그대의 어머니를 서울 십리 밖으로 나가 살게 하라.”
- 통천 수령 趙深을 파면. “음란 부녀의 아들은 고을의 표준에 되기에 부적절하다.”
- 1427년(세종11), 김씨 손자 趙由信 문과급제. 東班 서용을 반대
- 1430년, “조심과 조유신은 동반이 아닌 西班에 서용하라”

- 1431년, 朴坤의 충청 관찰사 임명 거부. “장모 김씨의 음행이~”
- 1432년, **실행 부녀**의 자손, 과거 응시 금지 상소. 趙由智를 겨냥.
- 별시위 조유지는 추잡하고 더러운 행동이 이미 드러난 김씨의 손자입니다. ~~ 적어도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녀의 도리를 어디에서도 바로잡을 데가 없고, 婦道가 바르지 않으면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풍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량해지겠습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九牛一毛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종실록》 14년(1432) 3월 3일



- 1435년, 김씨 외손자 광흥창사 李士平의 告身 거부
- 1436년, 김씨 손자 판관 趙由禮와 부교리 趙由信 상소
- 신의 조모는 문벌의 후예로서 아름다운 옷과 사치스런 주택을 갖게 된 것이 사람들의 증오를 불렀을 뿐 조금도 규문을 엄숙히 다스리지 않은 과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 傳에 이르기를, ‘선한 것은 길이 내려가게 하고, 악한 것은 그 당사자에게 그치게 한다’ 고 한 것은, 고금의 제왕들이 인재를 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 1447년, 조유례의 판통례 제수를 반대.
- 죽을 때까지 조심하고 삼가는 것은 한 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자손만대를 위한 염려이기도 합니다. 만일 ‘할아버지의 잘못이 어찌 후손에게까지 미치랴’ 라고 한다면, 누가 궁핍함을 고집 하면서 의리를 지키고, 절조를 가다듬어 좋은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 하겠습니까.
- 하필 구태여 음탕하고 더럽기가 막심한 것의 후손을 조정의 가장 깨끗한 벼슬에 앉혀서 공론에 폐를 끼치게 하옵니까.

- 1452년(문종 2), 중추원 부사 趙由禮 사직을 요청
- 1452년, 김씨 외손자의 사위 金效孟의 감찰직 제수 거부 상소.
- 1460년(세조 6), 김씨 사위 朴坤의 사위, 成重識의 감찰 제수 거부.
- 1462년, 김씨 외손자의 아들, 李掄의 수령직 제수 반대 논의.
- 김씨의 행위, 63년(1399~1462) 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됨.

- “실행한 부녀의 所生과 개가한 여자의 所生은 문반과 무반 모두에 서용하지 않는다” (《경국대전》 刑典, 1461년)
- “실행한 부녀의 자식과 서얼 자손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경국대전》 禮典, 1471년)
- 貞 / 節 / 烈, 貞節과 忠節 / 烈女와 忠臣
- **정절은 가족을, 충절은 국가를 지탱하는 이념**
정절은 가부장적인 통치의 편의를 위한 체제 이데올로기

- 1569년, 진주의 사족 함안 이씨 소문 사건이 보고되다.
- 기대승 “세간에 혹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 남명, 문인 吳健과 鄭琢에게 편지로 호소하다. <與子強子精書>

“淫婦의 남편인 하종악의 전처가 바로 내 죽은 형의 딸이기 때문
입니다.”

“죄인 서너 명이 옥에 갇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되살아났으니, 그
들이 원한을 품고 독심을 부리는 데 못하는 짓이 없어 보입니다. 흥
계를 품고 기필코 쏘아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죽을 날은 멀지 않은데, 오직 하늘의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 남명, 淫婦를 옹호한 李楨을 공격하다.

“10년 전 剛而를 만났을 때, 내가 음부의 일에 대해 분개하면서 ‘공은 한 집안 사람인데 어찌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계집종을 강물에 던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강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리는 소문이 하종악의 한강변 밭과 밭 지기 종 몇 명을 음부로부터 받았더군요.” (<與子強子精書>)

● 남명, 門徒를 결집시키다.

“나는 그를 사절했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난과 길흉은
붕우 사이에 서로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감히 언급을 했습니다. 일찍이
士論이 바야흐로 밝아진다고 들었는데, 公道가 암담한 것이 이런 지경
에 이르렀으니 그래도 벼슬할 수 있겠습니까?” (<與子強子精書>)

● 남명의 절교 선언으로 지역에서 이정의 입지가 불안해지다.

- 남명의 문도, '음부' 이씨의 집으로 몰려가 우물을 메우고 집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毀撤을 단행한 주모자들이 옥에 갇히다.
- 절교당한 李楨, 퇴계 이황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다.
퇴계, 장문의 답장을 보내다.
- 함안 이씨 사촌의 남편, **유희춘**은 서울의 권력가들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정절**'을 주장하며 구명운동을 벌이다.
“28세에 과부되어 열녀로서의 면모에 어긋나지 않았다.”

● 기대승

지역의 賢者이자 長者인 남명, 이래도 되는가?

“진주 유생들의 행위는 선비의 행동이 아니고 무뢰배들의 짓”

“ 推官들이 파직을 당한 것은 모두 조식이 떠들어서 그렇게 된 것”

- “조식과 이정은 평소 서로 친하게 사귀고 지냈는데, ~~ 하종악의 아내가 失行한 일로 인하여 명류의 長者들 사이에 서로 틈이 벌어지기까지 했으며 나이 젊은 사람들도 서로 배척하고 비방하니, 지극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

- 정인홍, 스승을 위한 변명

“나는 함양에서 곧바로 덕산으로 들어가서 선생께 모든 것을 고했다. 선생은 버럭 화를 내시며 “剛而가 한 집안에서 생긴 큰 문제를 은폐하면서 ~~”

“선생은 진사 하종악 후처의 음행 소문과 하종악의 孽妹가 이정의 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셨다. ~~ 감사는 마침내 하종악 집안의 시비와 종 원석 등을 체포했다. 그런데 함안 이씨 부인의 종형제가 요직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 이씨 부인을 적극 변호하여 마침내 그 사건이 해결되었다. 그 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이 오히려 선생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다.”

- 퇴계 李滉, 구암 李楨을 위로하다
-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사람마다 서로 전하여 떠들어 대니 항상 의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曹君은 세상에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 사람됨이 곳곳하여 속세를 초월하고 결백하여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의 마음을 엿어 댈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저 향리 한 부인의 실행 여부가 그 무슨 더럽혀질 거리가 된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높은 절개를 스스로 깎아 내리며 남들과 시비를 다투는 데 마음을 모두 허비하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여태껏 그만두지 않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퇴계의 편지, 《퇴계집》(1600년) 간행으로 세상에 공개되다.
- 퇴계 학단에서 '이 사건'에 대해 오고 간 이야기들도 공개되다.
- 이 사건으로 남명 문인들과 퇴계 문인들의 갈등이 심화되다.
- 남명 문집 간행, 오건과 정탁에게 보낸 남명의 편지, 뜨거운 감자
- 李楨의 손자 李鯤變, 조부를 위한 변명 “疑訛拙辨” 발표
- 曹植의 아들 曹浚明, “反李鯤變拙辯”으로 반격

● 김장생

남명과 퇴계는 본래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종악 처 소문 사건을 전해 듣고 더 옳지 않게 여겼다. 퇴계가 이정에게 편지를 보내 “애써 사실을 해명할 필요도 또 몸을 굽혀 의견의 일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

● 성호 이익

남명의 훌륭한 명망으로도 이 陰事 때문에 죄를 면하지 못할 뻔했는데, 奇高峯 등 여러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행히 면했으니, 이는 士大夫의 밝은 경계가 된다. 일절 입을 다물고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 송시열

남명은 御吏가 옥사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퇴계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기까지 하였네.

● 김주신

남명은 평생 고고하게 세속을 벗어나 있었으면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엄청난 낭패를 당했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남이 어질지 않다하여 미워함이 심하면 난이 일어난다” 고 하였고, 맹자는 말하기를 “남의 좋지 않은 것을 말하면 그에 따른 後患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다. 성현의 짧은 이 말이 어찌 후인들에게 藥石이 되지 않겠는가.

- 소문의 정치, 風聞公事 합법화가 배경
- 미인을 물리치고 글 공부에 전념하여 큰 선비가 된 **남명 설화** 탄생.
- 16세기 '별들의 전쟁'에서 사족 부인 함안 이씨의 명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